

컴퓨터의 三面等價 原則

어느날 미니컴퓨터를 만든다는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설명을 듣는 기회를 갖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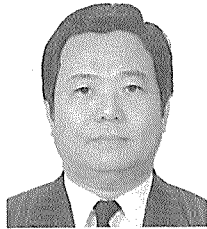
社長 理事 개발담당자 등 1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 제품의 기능, 이용방법 및 소프트웨어 등에 관해 열심히 소개를 했다.

他社제품에 비해 國産化率이 높아 긍지를 갖는다는 것도 잊지않았고 많은 물량을 수출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업체의 자랑이라고 까지 하였다. 또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터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설명을 듣고난후 제품을 試驗稼動하게 되었는데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가동이 잘 안되는 이유를 또 설명하는데 이제는 그 설명자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10년이상 電算業務에 종사했는데 이처럼 못알아 듣겠다니 내자신이 벌써 낙후된 것인지, 아니면 그 설명자가 첨단기술의 발전에 맞춰 話術이 첨단수준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몇년전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를 모르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도 되는 양으로 생각하며 컴퓨터 반도체 정보화사회 등에 관해 너도나도 소신을 밝히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연수

중소기업은행 인천지점장

그리고 컴퓨터교육을 위해서 初·中·高校에서 교과목으로 독립시켜야하며 개인용 컴퓨터(PC)를 보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각 학교에 퍼스컴이 많이 보급되었다.

몇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많은 PC가 실험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때는 구입만하면 모든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컴퓨터의 三要素인 機體(하드웨어), 運營체제(OS), 응용소프트웨어 중 機體의 보급에만 관심을 가져 그와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종종 컴퓨터를 判斷할때 오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도 價格으로만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컴퓨터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機體의 기능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기체를 효과적으로 움직이게하는 운영체제 및 사용목적에 맞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확보해야한다. 컴퓨터의 三面等價의 원칙을 널리 이해할 때 컴퓨터 산업이 진정으로 발전할 것이다.